

# ASEAN CINEMA WEEK 2019

ASEAN Cinema **NOW!**  
아세안 영화, **현재**를 만나다!

서울 · 부산 · 제주 · 광주  
2019. 11. 1-12. 13

2019 아세안영화주간

# 아세안문화원 ASEAN CULTURE HOUSE

아세안문화원(ASEAN Culture House, ACH)은 2014년 12월에 개최된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의 합의에 따라 외교부가 건립을 추진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The Korea Foundation, KF)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아 2017년 9월 1일 부산에 개원한 이래,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쌍방향 국제교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ACH는 다양한 '문화교류', '학술교육'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 10개국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한국인에게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아세안 출신 한국 거주자들에게는 자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양 지역 국민이 상호 화합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ASEAN Culture House (ACH) was established as an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made in December 2014 at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and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Korea Foundation (KF). Since its opening in Busan on September 1, 2017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ASEAN, ACH has served as a platform for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ASEAN an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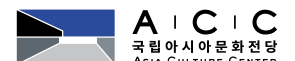
ACH offers comprehensive introductions of the 10 ASEAN member countries through a variety of cultural, academic and people-to-people exchange programs. In addition, ACH enhances Korean citizens' understanding of ASEAN culture, serves as a place where ASEAN residents in Korea currently residing in Korea can enjoy their native cultures, and creates opportunities for the peoples of ASEAN and Korea to build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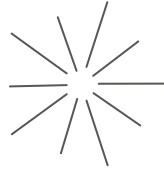


## 주최 / 주관 HOST



## 협력 / 후원 SUPPORT





## 목 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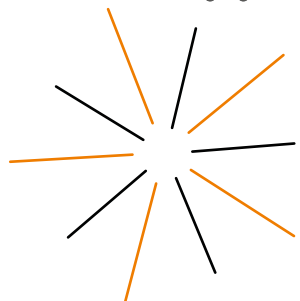
0 3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0 4	행사 소개 About ASEAN Cinema Week 2019
0 5	홍보대사 Festival Ambassador
0 6	상영관 및 티켓 안내 Screening Venues & Ticket Information
1 0	상영 일정표 Screening Schedule
1 3	상영 프로그램 소개 About Screening Program
	<b>상영작 Films</b>
1 4	리나2 Ada Apa Dengan Rina 2
1 6	짬뽕 밭탐방: 영혼의 노래 In the Life of Music
1 8	쩌마라 가족 이야기 Keluarga Cemara
2 0	긴 산책 The Long Walk
2 2	우핀 & 이핀의 모험 Upin & Ipin: Keris Siamang Tunggal
2 4	신비한 여인, 미 Mi
2 6	홀로/함께 Alone/Together
2 8	좀비 워 Zombiepura
3 0	프렌드 존 Friend Zone
3 2	퓨리 Furie
3 4	색인 Index
3 5	조직 및 스태프 Organization & Staff
3 6	도움주신 분들 Acknowledgements

영화는 인류의 삶을 기록하는 매체이자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된 올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이 개최하는 ‘2019 아세안 영화주간 - 아세안 영화, 현재를 만나다!’는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의 영화산업, 나아가 문화 현주소를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기에, 동 상영 프로그램이 ‘영화’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의 문화를 조명한 점은 더욱 의미 깊습니다. ‘2019 아세안 영화주간’은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관과 현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 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귀한 지식과 자료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한국과 아세안의 영화 전문가 및 협력기관 관계자 분들 덕분에 훌륭한 작품을 선정하고 상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객원 프로그래머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상영 프로그램을 계기로 타 영화제 및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를 통해 아세안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한-아세안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아세안 流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Film is a medium for documenting human life and a window into one's culture. As we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Korea dialogue relations, ASEAN Cinema Week 2019 - ASEAN Cinema NOW! is designed to promote the fast-growing film industry of Southeast Asia and, with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scheduled for November, to spotlight the cultures of the 10 ASEAN member countries through the milieu of film. ASEAN Cinema Week 2019 was supported and made possible by the embassies of all 10 ASEAN member states in Korea and by relevant institutions from these nations. Thanks are also due to cooperating organizations and their staff, who gladly shared their knowledge and resources, and to all collaborating film specialists. It is because of their help that these outstanding films were able to be chosen and screened. Addition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our guest programmer and to the many other people whose tireless efforts went toward preparing this festival.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is event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diversity of ASEAN culture through films that we may not have had access to previously, and spread the ASEAN Wave through cultural exchange between ASEAN and Korea.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근  
The Korea Foundation, President **Lee Geun**



# 2019 아세안영화주간 ASEAN CINEMA WEEK 2019

아 세 안 영 화 , 현 재 를 만 나 다 !  
ASEAN CINEMA NOW!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의미를 담아, 아세안문화원은 '2019 아세안 영화주간 -아세안 영화, 현재를 만나다!'를 선보입니다. 아세안 각국에서 큰 흥행을 거둔 총 10편의 인기영화를 상영하는 '2019 아세안 영화주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부산, 제주,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합니다. 가족, 로맨스, 코미디, 공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아세안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아세안 현지 감독 및 배우가 참석하는 GV(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영화를 매개로 최근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영화 그리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아세안 간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의 발판이 될 '2019 아세안 영화주간- 아세안 영화, 현재를 만나다!'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In celebration of the 2019 ASEAN-Korea Commemorative Summit, the ASEAN Culture House is proud to present ASEAN Cinema Week 2019 - ASEAN Cinema NOW! This exciting film festival will be held in major cities nationwide including Seoul, Busan, Jeju, and Gwangju, and will run from November through the first half of 2020. A total of 10 films will be screened, each a successful release from an ASEAN member state. Enjoy movies in a variety of genres including romance, comedy, horror, and animation, all at no charge. Then, join special Guest Visit (GV) sessions where directors and actors from these films participate in dialogue sessions with the audi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ASEAN-ROK dialogue relations, come partake in this special opportunity to experience ASEAN culture through its rapidly growing film industry. All are invited to ASEAN Cinema Week 2019 - ASEAN Cinema NOW!, a cornerstone for cultural exchange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ASEAN and Korea.

## 오창석 OH CHANGSEOK



KBS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2008)을 시작으로, 드라마 KBS <사랑아 사랑아>(2013), MBC <오로라 공주>(2013), <왔다! 장보리>(2014), SBS <피고인>(2017), MBN <리치맨>(2018) 등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내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그는 2012와 2013년 연속으로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며 대세 배우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영화 <조금만 더 가까아>(2010)를 시작으로 광고, 예능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왔다. 최근 KBS <태양의 계절>(2019) 주인공 오태양 역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Mr. Oh rose to popularity playing a variety of characters on many different TV shows, beginning with KBS's Worlds Within in 2008. Since then, he has featured in Love, My Love (KBS, 2013), Princess Aurora (MBC, 2013), Jan Bo-ri Is Here! (MBC, 2014), Innocent Defendant (SBS, 2017), Rich Man (MBN, 2018), and more.

He first made a splash by winning Best New Actor awards in 2012 (at the 20th Korean Culture and Entertainment Awards) and 2013 (at the MBC Drama Awards). His star rose as he has moved from television acting into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commercials, variety programming, and the 2010 film Come, Closer. Today, he is best known for his leading role as Oh Tae-yang in the 2019 television series A Place in the Sun, and is well-loved by audiences.

**서울**

**일시** | 2019. 11. 1 금 - 11. 3 일

**장소** |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ART 1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5-9 하이해리엇 10층  
(T. 1544-1122)  
· 주차할인권 적용시 2시간 무료 (2시간 이후 추가 10분당 1천원 부과)  
· 11층 서비스데스크에서 당일 티켓 제시 후 주차할인권 수령

**대중교통** | 지하철 4호선 명동역 7, 8번 출구

**부산**

**일시** | 2019. 11. 15 금 - 11. 16 토

**장소** | 영화의 전당 소극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전당 8층  
(T. 051-780-6000)  
· 영화 관람 시 3시간 이내 출차 무료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6, 12번 출구 (도보 5분)

**제주**

**일시** | 2019. 12. 7 토

**장소** | 메가박스 제주 6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8 7층  
(T. 1544-0070)  
· 주차타워 지하주차장 이용  
· 영화 관람 시, 3시간 이내 출차 무료

**대중교통** | 버스 '중앙로역' 또는 '국민은행 정거장'에서 하차

**광주**

**일시** | 2019. 12. 12 목 - 12. 13 금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3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지하3층  
(T. 1899-5566)  
· 기본요금 15분당 소형 400원, 중형이상 800원  
(별도의 주차권 제공 없음)

**대중교통** | 지하철 문화전당역 5,6번 출구

**Seoul**

**DATE** | 2019. 11. 1 FRI - 11. 3 SUN

**VENUE** | CGV Myeongdong Station Cine Library, ART Theater 1  
10th floor, High Harriet Building, 123 Toegye-ro, Jung-gu, Seoul  
(T. 1544-1122)  
· Free for two hours with a parking pass. (1,000 won per ten minutes after two hours.)  
· Parking passes can be obtained the day of the screening at the service desk on the 11th floor. You must present a valid movie ticket.

**Transportation** | Myeongdong Subway Station, Line 4, Gates 7 and 8

**Busan**

**DATE** | 2019. 11. 15 FRI - 11. 16 SAT

**VENUE** | Busan Cinema Center, Cinema II  
8th floor, 120 Suyeonggangbyeon-daero, Haeundae-gu, Busan  
(T. 051-780-6000)  
· Free for three hours for movie viewers on the day of the screening.

**Transportation** | Centum City Station, Subway Line 2, Gate 6 or 12  
(5 minute walk)

**Jeju**

**DATE** | 2019. 12. 7 SAT

**VENUE** | Megabox Jeju, Theater 6  
7th floor, 18 Jungang-ro 14-gil, Jeju-si, Jeju-do (T. 1544-0070)  
· Parking tower and underground lot available.  
· Free for three hours for movie viewers on the day of the screening.

**Transportation** | Take the bus to Jungang-ro Station or Kookmin Bank Bus Stop.

**Gwangju**

**DATE** | 2019. 12. 12 THU - 12. 13 FRI

**VENUE** | Asia Culture Center, Theater 3  
Basement Level 3, 38 Munhwajeondang-ro, Dong-gu, Gwangju  
(T. 1899-5566)  
· Regular rate of 400 won per 15 minutes for small cars and 600 won per 15 minutes for medium sized cars. (Parking passes are not issued.)

**Transportation** | Take the subway to Munhwajeondang (Culture Center) Station, Gates 5 and 6.

## 상영관 및 티켓 안내 Screening Venues &amp; Ticket Information

## 티켓 가격 | 전석 무료

- 전체 좌석의 70%는 온라인 예매, 30%는 현장예매로 운영됩니다.
- 현장예매 매진 시, 2019 아세안 영화주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asean\_cw)

- 온라인 예매** |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What's on에서 '2019 아세안 영화주간' 배너 클릭 및 예매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매
- 해당 영화 상영 전날 자정까지 예매 가능

	온라인 예매처	예매 오픈
<b>서울</b>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www.ach.or.kr)	2019. 10. 24(목) 14:00
<b>부산</b>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www.dureraum.org)	2019. 11. 11(월) 14:00
<b>제주</b> 메가박스 제주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www.ach.or.kr)	2019. 11. 28(목) 14:00
<b>광주</b>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온라인 사전 예매 없음	

- 현장 예매** | 영화제 기간 내 각 상영관 안내데스크 또는 티켓박스에서 발권 및 예매 가능
- 티켓 발권은 해당 영화 상영 시작 시까지 가능

	현장 예매처	유의사항
<b>서울</b>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당일 상영관 10층 아세안 영화주간 안내데스크로 방문 및 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상영작만 현장 발권 가능</li> <li>· 안내데스크/티켓박스 운영시간 참조</li> </ul>
<b>부산</b> 영화의전당	당일 영화의전당 티켓박스 방문 및 발권	
<b>제주</b> 메가박스 제주	당일 상영관 로비 아세안 영화주간 안내데스크로 방문 및 발권	
<b>광주</b>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영시작 2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티켓발권 없음)	자유좌석제

## 예매 유의사항

- 각 상영관 안내데스크 또는 티켓박스에서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확인 후 발권
- 온라인 예매자의 경우 실물 티켓 수령 후 상영관으로 입장 가능
- 현장 예매는 당일 안내데스크 또는 티켓박스에서 선착순 발권
- 개인 사정에 의한 재발권 불가 (분실, 훼손 등)

## 안내 데스크 / 티켓박스 운영시간

- 첫 상영작 시작 시간 30분 전부터 마지막 상영작 시작 시간까지  
예시) 11. 1(금)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13:30 - 20:00

## 상영관 및 티켓 안내 Screening Venues &amp; Ticket Information

## Ticket Price | All seats are free.

- 70% of seats will be available through online booking, with 30% available offline on the day of the screening.
- If tickets are sold out, an announcement will be uploaded to the ASEAN Cinema Week Instagram (@asean\_cw).

- Online Booking** | Visit the ASEAN Cultural House website > Click "What's on" > Click the banner for *ASEAN Cinema Week 2019 - ASEAN Cinema NOW!* > Make a reservation
- Note: Tickets will be available until 11:59PM the day before the screening.

	Online Booking	Booking Open
<b>SEOUL</b> CGV Myeongdong Station Cine Library	ACH website (www.ach.or.kr)	Oct 24 (Thu), 14:00
<b>BUSAN</b> Cinema Center	Cinema Center Website (www.dureraum.org)	Nov 11 (Mon), 14:00
<b>JEJU</b> Megabox Jeju	ACH website (www.ach.or.kr)	Nov 28 (Thu), 14:00
<b>GWANGJU</b> Asia Culture Center	Online booking is not available.	

- Offline/On-Site Booking (Screening Day)** | Tickets can be purchased at the information desk or ticket box of each theater.
- Note: Tickets will be available until the movie's scheduled start time.

	Offline/On-Site Booking	Notice
<b>SEOUL</b> CGV Myeongdong Station Cine Library	Visit the ASEAN Cinema Week theater information desk (10th floor) on the day of the screening.	Only available on the day of the screening. Please regard the information desk/ticket box hours of operation below.
<b>BUSAN</b> Cinema Center	Visit the Busan Cinema Center ticket box on the day of the screening.	
<b>JEJU</b> Megabox Jeju	Visit the information desk in the lobby of the ASEAN Cinema Week theater on the day of the screening.	
<b>GWANGJU</b> Asia Culture Center	Tickets will not be issued. The theater will open 20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begins.	Seats are not assigned.

## Collecting Tickets

- If you booked your tickets online, present your booking number (booking confirmation via SMS) and tickets at the theater.
- If you are buying tickets on the day of the screening, please visit the information desk or ticket box. (Tickets will be available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 Lost or damaged tickets cannot be reissued.

## Information Desk/Ticket Box Hours of Operation

- We will open 30 minutes before the first movie starts and close at the scheduled start time of the last movie.  
For example: Friday, November 1, CGV Myeongdong Station Cine Library from 13:30-20:00

## 상영 일정표 Screening Schedule

서울 Seoul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CGV Myeongdong Station Cine Library

DATE	TIME	TITLE	RT	GV	RATE	SUBTITLE	PAGE
11. 01 FRI	14:00	우핀 & 이핀의 모험 Upin & Ipin: Keris Siamang Tunggal	100'	●	G	KE	22
	19:00	개막식 Opening Ceremony					
	20:00	개막작 상영 Opening Film Screening 프렌드 존 Friend Zone	119'		12	NK	30
11. 02 SAT	11:00	찜빠 밧탐방: 영혼의 노래 In the Life of Music	92'		12	KE	16
	13:30	쩌마라 가족 이야기 Keluarga Cemara	108'	●	12	KE	18
	16:30	퓨리 Furie	98'	●	15	KE	32
	19:30	좀비 워 Zombiepura	82'	●	15	NK	28
11. 03 SUN	11:00	리나 2 Ada Apa Dengan Rina 2	104'	●	15	KE	14
	14:00	신비한 여인, 미 Mi	116'		15	KE	24
	16:30	긴 산책 The Long Walk	116'		15	KE	20
	19:00	홀로/함께 Alone/Together	103'		15	KE	26

## 상영일정표 보는 법 GUIDE

## 등급 RATING

G	전체관람가 General
12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15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GV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 게스트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GV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 자막 SUBTITLE

KE	비영어대사 + 한국어자막 & 영어자막 Non-English Dialogues + Korean & English Subtitles
NK	비영어대사 + 한국어자막 Non-English Dialogues + Korean Subtitles

## 부산 아세안문화원 Busan ASEAN Culture House

2020. JAN - FEB 영화 상영, 강좌 Film Screening, lectures

## 대구, 수원 등 Daegu, Suwon (TBA)

2020. MAR - MAY 영화 상영 Film Screening

## 상영 일정표 Screening Schedule

부산 Busan 영화의 전당 소극장 Cinema Center, Cinema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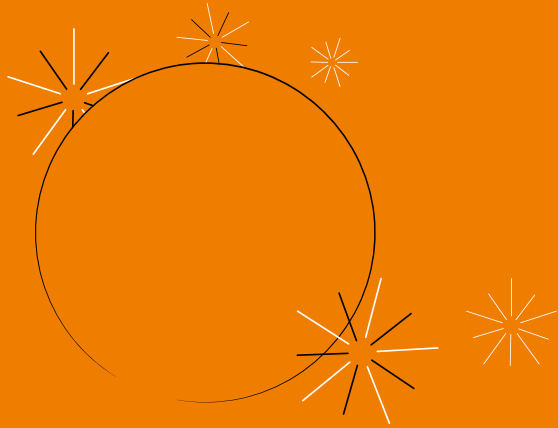
DATE	TIME	TITLE	RT	GV	RATE	SUBTITLE	PAGE
11. 15 FRI	14:00	긴 산책 The Long Walk	116'		15	KE	20
	19:00	기념식 Special Ceremony					
	19:50	상영 Film Screening 찜빠 밧탐방: 영혼의 노래 In the Life of Music	92'		12	KE	16
11. 16 SAT	11:00	리나 2 Ada Apa Dengan Rina 2	104'		15	KE	14
	13:30	우핀 & 이핀의 모험 Upin & Ipin: Keris Siamang Tunggal	100'		G	KE	22
	16:00	신비한 여인, 미 Mi	116'	●	15	KE	24
	19:00	홀로/함께 Alone/Together	103'		15	KE	26

제주 Jeju 메가박스 제주, 6관 Megabox Jeju, Theater 6

DATE	TIME	TITLE	RT	GV	RATE	SUBTITLE	PAGE
12. 07 SAT	11:00	우핀 & 이핀의 모험 Upin & Ipin: Keris Siamang Tunggal	100'		G	KE	22
	13:30	프렌드 존 Friend Zone	119'		12	NK	30
	16:00	좀비 워 Zombiepura	82'		15	NK	28
	19:00	퓨리 Furie	98'		15	KE	32

광주 Gwangju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관 Asia Culture Center, Theater 3

DATE	TIME	TITLE	RT	GV	RATE	SUBTITLE	PAGE
12. 12 THU	13:30	긴 산책 The Long Walk	116'		15	KE	20
	16:00	찜빠 밧탐방: 영혼의 노래 In the Life of Music	92'		12	KE	16
12. 13 FRI	13:30	신비한 여인, 미 Mi	116'		15	KE	24
	16:00	쩌마라 가족 이야기 Keluarga Cemara	108'		12	KE	18



**리나2** Ada Apa Dengan Rina 2

**찜빔** 빗따방: 영혼의 노래 In the Life of Music

**쩌마라 가족 이야기** Keluarga Cemara

**긴 산책** The Long Walk

**우핀 & 이핀의 모험** Upin & Ipin: Keris Siamang Tunggal

**신비한 여인, 미** Mi

**홀로/함께** Alone/Together

**좀비 워** Zombiepura

**프렌드 존** Friend Zone

**퓨리** Furie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영화와 영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영화산업의 성장세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영화강국인 태국, 필리핀은 특화된 장르와 자국문화전통에 기반한 영화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산업기반이 태동단계에 있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도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 아세안영화에 주목하는 영화제가 열렸지만 이번에 마련한 ‘2019 아세안 영화주간-아세안 영화, 현재를 만나다’는 주로 국내외 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작가/예술영화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영화산업의 현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류 상업영화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부터 호러, 로맨스, 그리고 가족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토리를 지닌 상영작들은 자국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도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영화들과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작가들의 신작들입니다. 10편의 개성 넘치는 영화들을 통해 성장하는 아세안 영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With the rapid expansion of the ASEAN film industry, films from the ASEAN member states are entering the spotlight. Worldwide attention has turned to the growth of Indonesian and Vietnamese cinema, while traditional movie powerhouses such as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continue to strengthen their hold through the use of specialized genres and cultural traditions. Particularly remarkable are the new movements led by young filmmakers in countries such as Cambodia, Laos, and Myanmar, where cinema could still be considered to be in its relative infancy. Differentiating itself from other film festivals that highlight the art films of ASEAN, ASEAN Cinema Week 2019 - ASEAN Cinema NOW! introduces mainstream commercial films that show the current state of the growing ASEAN film industry. From animation to horror, romance to family drama, the various movies being screened each received audience acclaim and domestic commercial success, and serve to showcase filmmakers who will lead new cinematic trends. Enjoy this valuable opportunity to see through 10 unique films how the present will meet the future of the booming industry of ASEAN cinema.

## 리나 2

## Ada Apa Dengan Rina 2

Brunei Darussalam | 2017 | 104' | Color | Fiction



브루나이의 두 청년 하킴과 파이살은 완벽한 사랑을 꿈꾸며 여행을 떠난다.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만난 아리따운 라오스인 관광 가이드 미나에게 동시에 마음을 뺏긴 둘은 꿈꾸던 사랑을 얻기 위해 오랜 우정도 잊은 듯하다. 이 때 둘 앞에 나타난 연애 코치 야히야.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인 그는 라오스의 대단한 재력이 카이아욱과의 경쟁에서 말라이의 마음을 얻어 낸 위대한 연애 승자였다. 한 명의 여인, 한 명의 스승. 하킴과 파이살 가운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2013년 <Ada Apa Dengan Rina>의 후속작으로 2017년 개봉된 이 영화는 라오스의 제작사와 합작해 라오스와 브루나이두루살람을 로케이션으로 제작되었다. 아세안 국가를 잇는 영화라는 찬사와 함께 아세안의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였으며, 브루나이 영화 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영화로 평가 받았다.

Hakim and Faisal, two young Bruneian men, set out on a trip dreaming of the perfect romance when both of them fall for Mina, a beautiful Lao tour guide they meet in Vientiane. Hoping to win her love—a love of which they've always dreamed—they seem to forget their old friendship. They run into a romance coach named Yahya, a guesthouse manager who previously beat a man of great wealth in a battle of love and won the heart of Malai. One woman. One coach. Between Hakim and Faisal, who will come out on top?

This sequel to *Ada Apa Dengan Rina* (2013) was first released in 2017. Shot entirely in Laos and Brunei, the film is the result of a collaboration with a Laotian production company. It has won awards at various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garnering praise for its connection of ASEAN countries. It is seen as an embodiment of the potential of Brunei's film industry.



Dir. 할리프 모하마드  
Harlif Mohamad

할리프 모하마드는 TV 드라마 시리즈를 연출했고,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에 국영방송국 라디오 텔레비전 브루나이의 최우수드라마시리즈상을 받았다. <리나 2>는 그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이며 2019 아세안국제영화제시상식에서 아세안스피릿상을 받았다. 그는 브루나이두루살람의 영화연극발전협회(FITREE) 회장이다.

Harlif Mohamad has directed TV drama series and won Radio Television Brunei's Best Drama Series awards in 2004, 2008, 2010, and 2014. *Ada Apa Dengan Rina 2*, his second feature film, won the ASEAN Spirit Award at the 2019 ASE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Awards. He is the president of Brunei's Film and Theatre Evolution Association (FITREE).

## 점빠 밧탐방: 영혼의 노래 In the Life of Music

Cambodia | 2018 | 92' | Color | Fiction



‘호프’(Hope,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닌 젊은 여인이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나이 든 남성, 어린 꼬마와 함께 차를 타고 길을 떠난다. 그러나 차는 고장나고, 숙소는 차마 잠을 청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답답하고 고된 상황. 그녀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을까? 영화는 호프의 현재 시점인 2000년대와 함께 낭만적이고 평화로웠던 1960년대, 크메르루주 치하의 엄혹했던 1970년대, 세 시기를 오가며 진행된다. 이를 엮어내는 것은 가족, 연인,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어루만져주는 음악이다. 특히 “크메르 음악의 왕”이라 불린 당대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썬 씨사뭇의 ‘점빠 밧탐방’은 이 작품의 백미다. 케일리 쏘와 썬 위살의 공동 연출작으로 올해 캄보디아 관객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작품.

A young woman named Hope arrives in Cambodia. She takes to traveling with an older man and a boy who approach her while she waits for someone, but their car breaks down and accommodations are uncomfortable. Hope is frustrated by the language barrier and faces a painful situation. What brought her here? *In the Life of Music* details three separate periods: Hope's current life in the 2000s, the romantic and peaceful 1960s, and the harsh 1970s under the Khmer Rouge regime. Across time, music captures the affection between family, lovers, and friends. *Champa Battambang*, a song by “the King of Khmer Music” Sinn Sisamouth, is a particular source of beauty. Co-directed by Caylee So and Sok Visal, this was Cambodia's best loved film of the year.



Dir. 썬 위살  
Sok Visal

썬 위살은 캄보디아계 프랑스인으로, 영화 제작자이자 음악 프로듀서이다. 그는 그의 첫 장편 영화인 <젬스 온 더 런> (2013)을 공동연출했고, 이 작품은 전 세계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또한 캄보디아의 첫 성소수자 코미디 영화인 <파피, 헐리우드 가다> (2017)를 연출하였다.

Sok Visal is a French-Cambodian filmmaker and music producer. In 2013, he co-directed his first feature film *Gems on the Run*, which was screened at festivals around the world. Visal also directed Cambodia's first LGBT comedy, *Poppy Goes to Hollywood Redux* (2017).



Dir. 케일리 쏘  
Caylee So

케일리 쏘는 1981년 태국-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난민 캠프 카오이당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캄보디아타운영화제의 공동 창설자이자 캄보디아국제영화제 명예위원회의 회원이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제32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Caylee So was born in 1981 in Khao-I-Dang, a refugee camp on the Thai-Cambodia border. She is a co-founder of the Cambodia Town Film Festival, an honorary committee member of the Cambodi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a recipient of Los Angeles County's 32nd Annual Women of the Year Award.

## 쩌마라 가족 이야기

### Keluarga Cemara

Indonesia | 2018 | 108' | Color | Fiction



아름다운 아내와 어린 두 딸의 가장인 아바는 처남의 실수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고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아바는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자바섬의 어느 작은 마을로 간다. 풍족했던 도시 생활을 떠나 허름한 집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 가족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된다. 영화는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 가족을 조명하고 있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로 비춰진다. 풍족했지만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가족과 중요한 시간을 나눌 수 없었던 가장은 모든 걸 다 잃고 난 뒤 비로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건 돈보다 가족 간의 사랑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영화는 진부한 소재에 소소한 재미를 더해 잔잔한 감동까지 전해준다. 1990년대 방영된 인기 TV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인도네시아의 가족관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평가된다. 큰 딸 이시스 역을 맡은 JKT 48 멤버 아디스티 짜라의 연기도 큰 호평을 받았다.

Abah, who lives with a beautiful wife and two young daughters, has all his property confiscated one day due to his brother-in-law's debt. With creditors hot on his heels, he moves his family to a remote village in Java where he spent his childhood. His family struggles to adapt to their new situation, living in a humble house that is miles away from the affluent urban lifestyle they enjoyed before. The film focuses on the family, who anticipate hardship but come to live a new life filled with laughter and merriment. Abah's past, though luxurious, was so busy with work that he missed all of his family's important moments. Now, after losing everything, he finally spends some quality time with his wife and daughters. The film openly illustrates that love within a family is much more valuable than money. Though the subject matter might seem cliché, it's complemented by subtle, heartwarming, and fun moments. Based on a 1990s TV series, the film is considered an excellent portrayal of family values in Indonesia. Adhity Zara, a member of JKT 48, impresses with her critically acclaimed performance in the role of Euis, Abah's oldest daughter.



**Dir. 안디 로렌스**  
Yandy Laurens

안디 로렌스는 단편 영화를 연출하며 영화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의 단편 영화 중 <완 안>은 2012년 인도네시아영화제에서 최우수단편영화상을 받았다. 이후, 그는 웹 시리즈로 경력을 확장하여 <소레, 미래에서 온 아내>로 2018년 XYZ데이에서 올해의 브랜드 콘텐츠상을 받았다. <쩌마라 가족 이야기>는 그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이다.

Yandy Laurens began his career directing short films. One of these films, *Wan An*, won Best Short Movie at the 2012 Indonesian Film Festival. Soon, he expanded his career to webseries, winning Brand-ed Content of the Year at XYZ Day 2018 for his work on *Sore: A Wife from the Future*. *Keluarga Cemara* is his first feature-length film.

## 긴 산책 The Long Walk

Lao PDR | 2019 | 116' | Color | Fiction



라오스의 시골 마을. 한 중년 남성이 있다. 오토바이나 기계를 고치며 살아가는 평범한 촌부처럼 보이지만 뭔가 수상쩍다. 한 가족이 있다. 병에 걸린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나물을 팔고, 어린 아들은 어머니를 돕고자 하지만 역부족이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짜증만 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녀의 영혼과 친구가 된다. 과연 이들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국제 무대에 이름을 널리 알린 라오스 최초의 여성감독 매티 도의 세 번째 장편영화. 데뷔작부터 꾸준히 자신만의 시각과 문법으로 호러·미스터리 작품을 만든 그녀는 이번 신작에서도 영화 내내 유지되는 묘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통해 탁월한 연출력을 선보인다. 2019년 베니스, 토론토, 부산 등 유수의 국제영화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난 수작.

In a remote Laotian village, one middle-aged man makes a living repairing motorbikes and machines. Though he seems like an ordinary villager, something about him is out of place. In the present, a sick mother sells herbs on the street to make a living. Despite her young son's best intentions, he is unable to offer any help and his irritable father keeps losing his temper with the rest of the family. One day, the boy stumbles upon a woman bleeding to death and ends up befriendng her spirit. What does fate have in store for them? This is the third feature film by Mattie Do, the first female Lao director to make a name for herself on the international scene. Since her debut, her work has consistently presented a unique perspective and cinematic grammar, seen easily in her mystery and horror films. Here, she once again proves her exceptional directing skills through the uncanny sense of tension and immersion maintained throughout the film. This cinematic gem has been presented at major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Venice, Toronto, and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Dir. 매티 도  
Mattie Do

매티 도는 라오스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여성 영화감독이다. 그녀의 첫 장편 영화인 <찬탈리>는 1975년 혁명 이래 라오스에서 만들어진 9번째 장편 영화이자 동남아시아 지역 외 국가에서 상영하는 첫 번째 라오스 영화였다. 그녀의 두 번째 장편인 <디어리스터 시스템>은 수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제90회 아카데미영화제에 라오스 첫 공식 출품작이 되었다.

Mattie Do is Laos's first, and only, female filmmaker. Her first feature film, *Chanthaly*, was the ninth feature film produced in Laos since the 1975 revolution and the first Lao film to be screened outside of Southeast Asia. Her second feature, *Dearest Sister*, was screened at numerous festivals around the world and was selected as Laos's first official submission to the 90th Academy Awards.

## 우핀 & 이핀의 모험

### Upin & Ipin: Keris Siamang Tunggal

Malaysia | 2019 | 100' | Color | Animation



한국에 뽀로로가 있다면 말레이시아에는 우핀 & 이핀 쌍둥이 형제가 있다. 전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기념우표까지 등장한 우핀 & 이핀 형제는 말레이시아 TV 교육프로그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 2009년 말레이시아 최초 3D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첫 번째 장편영화 <겐: 모험의 시작>를 시작으로 2019년, 말레이시아 역대 최고의 제작비를 들여 우핀 & 이핀의 세 번째 장편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자국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 역대 2위의 흥행기록을 세웠다.

우연히 말레이 전통의 단검을 발견한 우핀 & 이핀과 친구들은 단검이 열어버린 통로를 통해 인데라로카 왕국에 도착한다. 고향마을로 돌아오기 위한 모험의 여정에서 말레이시아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모두들 힘을 모아 왕국을 파괴하려는 사악한 왕 라자에 맞서 과거 화려했던 왕국의 역사를 되살려내려 한다.

Twins Upin and Ipin are to Malaysia what Pororo is to Korea. These beloved animated brothers star in an educational TV program and even have their own commemorative postage stamps. Created in 2009 as a Malaysia's first CGI-animated feature film *Geng: The Adventure Begins*, this 2019 adventure, Upin and Ipin's third cinematic appearance, had record-high production costs that it recouped as the second-highest earning animated film at the Malaysia box office.

In Upin & Ipin: Keris Siamang Tunggal, the twins and their friends stumble upon a traditional Malaysian dagger that opens a passage to the kingdom of Inderaloka. In order to return home, they have an adventure that puts them up against characters out of Malaysian myths and legends. Together, they pool their strength to fight off the evil king Raja Bersiang to save the kingdom and restore its golden age.



**Dir. 아담 빈 아미루딘**  
Adam Bin Amiruddin

아담 빈 아미루딘은 가상현실을 전공했고, 애니메이션계에서 10년 이상 일해 왔다. 2012년부터 <우핀 & 이핀의 모험>을 연출하기 시작했고 네 시즌을 연이어 맡았다. 180여 편의 에피소드들을 만들었던 경험으로 우핀과 이핀 캐릭터를 이끌고 있다.

Adam Bin Amiruddin, a major in Virtual Reality, has worked in the animation industry for over 10 years and directed the *Upin & Ipin* animated series for four consecutive seasons beginning in 2012. With over 180 episodes under his belt, he oversaw animation of the titular Upin and Ipin for the film.

**Dir. 사예드 누르파이즈 칼리드 빈 사예드 이브라힘**  
Syed Nurfaiz Khalid Bin Syed Ibrahim

사예드 누르파이즈 칼리드 빈 사예드 이브라힘은 쿠알라룸푸르대학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했고, 애니메이션계에서 12년이 넘는 경력이 있다. <파다 자만 다홀루> 시즌 3과 일본에서 수상하기도 한 <푸테리>를 연출했다.

Syed Nurfaiz Khalid Bin Syed Ibrahim is a graduate in animation of the University of Kuala Lumpur and has over 12 years of experience in the animation industry. He directed season 3 of *Pada Zaman Dahulu* and the series *Puteri*, which won an award i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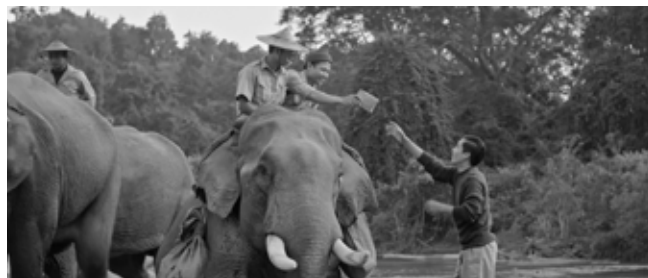
**Dir. 아흐마드 라즈리 빈 로셀리**  
Ahmad Razuri Bin Roseli

아흐마드 라즈리 빈 로셀리는 애니메이션계에서 총 11년을 일했고, 말레이시아의 첫 3D 애니메이션 영화인 <겐, 모험의 시작> 제작에 참여했다. <파다 자만 다홀루>로 연출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총 87 에피소드를 연출했다.

Ahmad Razuri Bin Roseli has a total 11 years of experience in the animation industry and worked on Malaysia's first 3D animated feature film, *Geng: The Adventure Begins*. He began his directing career on the series *Pada Zaman Dahulu*, for which he directed a total of 87 episodes.

## 신비한 여인, 미 Mi

Myanmar | 2018 | 116' | B&W | Fiction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얀마의 어느 정글 속 벌목장. 한 젊은 남성이 자신이 사모하던 '미'라는 여인 때문에 괴로워하다 결국 목숨까지 끊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상관 따위는 미를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서는데...

미얀마의 저명한 작가 짜에의 1955년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다. 나지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으로 각색과 프리프로덕션에 상당 시간 공을 들였다. 영화가 공개되자 1940~50년대 당시의 사회상은 물론 의상, 인테리어 등을 디테일하게 재현해냈다고 찬사를 받았다. 촬영과 연출, 배우들의 연기도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배우 빠잉표두는 극의 중심인 미를 완벽하게 소화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

Following the end of the World War II, a young man working in a lumber camp agonizes over his love for a woman named Mi and ends up taking his own life. The young man's boss, Thaw Swe, takes responsibility for this unfortunate incident and resigns from his post before setting out to meet Mi in person.

Director Na Gyi's feature debut is based on the eponymous 1955 novel by the renowned Burmese writer Kyi Aye. The director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ffort working on pre-production of the adaptation, which, upon release, instantly garnered praise for its detailed period costumes, settings, and representation of 1940s and 50s society. *Mi* has been favorably received by both critics and viewers alike for its cinematography, directing, and acting. In particular, Paing Phyoe Thu's impeccable portrayal of Mi draws audiences deeper into the film's central character.



Dir. 나 지  
Na Gyi

나 지는 런던 레인댄스에서 디지털 영상 제작을 공부했다. 이후 미얀마로 돌아가 뮤직비디오와 TV 광고 업계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2019 아세안국제영화제시상식에서 그의 첫 장편영화인 <신비한 여인, 미>로 최우수촬영감독상을 받았다.

Na Gyi studied Digital Filmmaking at Raindance in London. Afterwards, he began working on music videos and TV commercials in Myanmar. He won Best Director of Photography for *Mi*, his first feature-length film, at the 2019 ASE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Awards.

## 홀로/함께 Alone/Together

The Philippines | 2019 | 103' | Color | Fiction



박물관에서 단체관광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슨트 알바를 하는 대학생 틴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그림 '스폴리 아리움'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끼여든 라프와 가벼운 연쟁을 벌인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인연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만, 졸업 후 어떤 사건에 연루된 틴은 어쩔 수 없이 라프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재회한 둘에게는 각자 연인이 있지만 예전의 감정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재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로맨스 장르의 영화로 개봉 당시 3억 필리핀 페소 이상의 흥행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은 작품. 하지만 <홀로/함께>의 가장 주목할 지점은 감독 앙트와넷 자다온과 제작사 블랙십(Black Sheep)이다. <타다나의 모든 것>으로 흥행과 비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앙트와넷 자다온은 상업영화와 작가영화 사이에서 활동하며 필리핀영화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감독. 또한 메인디(Maindie)라고 부르는 주류상업영화와 독립영화 사이에 위치한 웰메이드 영화가 최근 필리핀 박스오피스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문을 연지 일년 남짓 된 제작사 블랙십이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University student Tin, who works as part-time museum guide, ends up in a debate with Raf, who interrupts her explanation to a tour group about Spoliarium, a famous painting that represents the Philippines. The pair begin a romantic relationship, but due to an incident after Tin's graduation, they are forced apart and Tin bids Raf farewell. Many years later, they meet again by coincidence, this time both in separate relationships. Old feelings are sparked, leading to confusion and frustration in this film that features all the hallmarks of romance: love, break up, and reunion. Upon release, *Alone/Together* drew immediate attention by setting box office records; the film went on to gross more than 300 million Philippine pesos. But it is most notable as a collaboration of director Antoinette Jadaone and production studio Black Sheep. Jadaone received box office success and critical acclaim for *That Thing Called Tadhana*, and is known for rejuvenating Philippine cinema with her work directing films that straddle the line between commercial and independent cinema. These mainstream/indie crossover efforts, dubbed "maindie," are currently leading the Philippine film industry and Black Sheep is at the head of this trend. This has many waiting to see what's next for Philippine cinema.



Dir. 앙트와넷 자다온  
Antoinette Jadaone

앙트와넷 자다온은 2014년 <타다나의 모든 것>으로 필리핀 영화계에 파장을 일으킨 감독이자 작가, 그리고 프로듀서이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를 비롯한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은 많은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Antoinette Jadaone is a director, writer, and producer who made waves in 2014 with *That Thing Called Tadhana*. She is well-known for other commercially and critically successful films, including *Love You to the Stars and Back*.

## 좀비 워 Zombiepura

Singapore | 2018 | 82' | Color | Fiction



따분하기만 한 예비군 훈련장. 실 핑계를 찾는 카유는 의무실 주변을 서성거리며 기회를 엿본다. 카유처럼 농땡이 칠 기회를 노리며 새치기할 궁리나 하는 훈련 병들로 득실거리는 대기실에 피범벅이 된 훈련병이 실려 오고, 갑자기 눈을 뜬 훈련병은 무차별적으로 주변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좀비들의 습격으로 삼시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린 훈련장. 카유는 천상 군인인 상사와 옆집에 사는 여자와 함께 생존을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 싱가포르 최초의 좀비 영화라고 소개되었던 영화로, 감독이 7년 전 예비군 훈련장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던 프로젝트였다고 한다. 투자를 찾지 못해 제작을 포기하던 와중에 한국영화 <부산행>의 기록적인 흥행이 투자를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렇게 완성된 영화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필리핀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개봉하며 주목을 받았다. 한국 관객에게도 익숙한 예비군 훈련장, 모기 퇴치제 등을 주요 모티브로 삼고 B급정서와 좀비영화 장르의 재미를 잘 버무려 완성한 매력적인 아시아 장르영화.

Kayu wanders around the infirmary of his army camp, looking for an excuse to slack off like the other reservist soldiers who fill the beds. When a soldier covered in blood is carried in and suddenly begins attacking everyone in sight, the army camp becomes a war zone in the blink of an eye. Kayu is forced to fight alongside his supervisor, a born-to-be soldier, and a woman who lives next door. *Zombiepura* is the first Singaporean zombie film, the result of an idea director Jacen Tan had at a reservist army camp several years prior. Although the film was almost abandoned due to a lack of funding, the record success of 2016's *Train to Busan* generated interest from investors. The film drew attention for its international debut, released not only in Singapore but also in the Philippines and several other Asian countries. The army camp setting, use of mosquito repellent, and other themes and features are sure to be familiar to Korean audiences. An attractive Asian genre film that combines the fun of B-movies and zombies.



Dir. 제이슨 탄  
Jacen Tan

스트레이트 타임즈 라이프가 '싱가포르 최신 코믹 영화의 왕'이라고 부른 떠오르는 영화 신예감독. 유튜브가 널리 퍼지기 전, 그의 첫 단편 영화, <탁기우>는 조회 수 10만을 기록하였고, 2005년, 그의 두 번째 영화, <조 펑>은 파나소닉MDA디지털필름영화제에서 2위를 기록하였다. 이후로 <조 강>, <조 히> 두 작품으로 코믹 3부작을 완성했다.

Exciting young filmmaker Jacen Tan was named by *The Straits Times Life!* as "Singapore's latest film funnyman." In the pre-YouTube days, his first short film *Tak Giu* became a viral sensation, racking up over 100,000 views. *Zo Peng*, his second film, won second place at the 2005 Panasonic/MDA Digital Film Fiesta. Thi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wo more films, *Zo Gang* and *Zo Hee*, completing the *Zo* comedy trilogy.

## 프렌드 존 Friend Zone

Thailand | 2019 | 119' | Color | Fiction



십대들의 풋풋한 사랑이야기를 다룬 영화 <썩시드>로 태국영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차야놈 분프라콕 감독의 2019년 신작 로맨틱코미디. 서로의 치부마저 모두 공유하는 10년지기 남사친 뽀와 여사친 킁의 '우정 극복, 사랑 성공' 이야기이다.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한 킁과 그런 킁을 옆에서 지켜주는 뽀는 '사랑은 변하지만 우정은 변치 않는다'는 신념으로 십 년째 서로의 둘도 없는 절친으로 '프렌드 존'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지낸다. 이렇게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두 남녀는 십 년 우정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며 어쩌면! 영원할 수도 있는 사랑을 시작하려고 한다. 광고모델로 데뷔해 가수와 배우로 유명한 남주 나팜 씨앙솜본과 현재 태국 최고의 여배우로 각광받는 핼 차록 르위셋파이본의 상큼하고 훈훈한 외모와 연기는 물론이고, 동남아 각국과 홍콩의 유명 가수들이 카메오로 출연해 영화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Friend Zone* is a new romantic comedy from Chayanop Boonprakob, who burst onto Thailand's film scene with his debut work *Suckseed*—a story of young love between teenagers. Having been best friends for years, Palm and Gink share everything with each other, right down to their most embarrassing secrets. As their story unfolds, we see how this boy-girl duo navigates friendship and romance. Even since Gink witnessed her father's extramarital affair as a little girl, Palm has always stood by her side. With the belief that "love is fickle but friendship is constant," they have remained the best of friends for ten years, wary of stepping out of the friend zone. Torn between love and friendship, they eventually find that their decade-old arrangement has reached a dead end. Perhaps this will lead to the start of a budding romance that may last forever!

The movie stars Naphat Siangsomboon, who debuted as a TV commercial model and rose to stardom with his acting and singing skills, and Pimchanok Leuwisetpaiboon, hailed as one of today's greatest Thai actresses. Both charm the audience with their exceptional performances and good looks, while cameo appearances from several popstars from Southeast Asia and Hong Kong render the film all the more entertaining.



Dir. 차야놈 분프라콕  
Chayanop Boonprakob

차야놈 분프라콕은 쉐랄롱콘 대학에서 영화와 사진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타이 항공에서 3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많은 단편영화를 감독하여 태국 내에서 많은 상을 받았으며, 2011년에 <썩시드>라는 작품으로 장편 데뷔하였다.

After graduating from Chulalongkorn University with a degree in Film & Still Photography, Chayanop Boonprakob worked for three years as a flight attendant for Thai Airways before quitting to pursue his dream of making films. He has directed a variety of award winning short films and made his feature-length directorial debut in 2011 with *SuckSeed*.

## 퓨리

## Furie

Viet Nam | 2019 | 98' | Color | Fiction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제작 투자한 영화로, 자국에서 흥행대박을 터트리며 큰 화제를 모았고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영화라는 기록을 남긴 화제작. 베트남 호치민을 배경으로 화끈한 액션과 익숙하지만 강렬한 스토리로 베트남영화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일거에 날려버린다. 영화의 제작과 주연을 맡은 베로니카 응(응오 탄 반)는 지난 몇 년 간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땀과 꿈 이야기> (국내 개봉 제목: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의 감독으로, <디자이너>에는 프로듀서와 주연배우로 참여하며 베트남영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에 출연하며 해외진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려서부터 무술을 연마했지만 조폭으로 살던 하이푸엥은 임신으로 조직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서 딸을 키우며 사채업자 밑에서 수금이나 하며 연명하고 있다. 어느 날 평범한 생활을 원하던 딸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자, 딸을 구출하기 위한 하이푸엥의 일생일대의 도전이 시작된다.

*Furie*, produced and financed by LOTTE Entertainment, was a huge hit in Vietnam and made records as the first Vietnamese film to be released in the United States. Filmed in Ho Chi Minh City, the film's blockbuster action and familiar yet striking storyline blow away any prejudices about Vietnamese cinema. Producer and lead actress Veronica Ngo (Ngo Thanh Van) is a superstar in the Vietnamese film industry, directing *Tam Cam: The Untold Story* (released in Korea as *Battle of the World: War for the Throne*) and producing and starring in *Designer*, both of which were screene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go also appeared in *Star Wars: The Last Jedi* and shows interest in representing herself on the international stage.

*Furie* follows Hai Phuong, a former gangster and a practitioner of martial arts since childhood. After her pregnancy leads her to abandon her previous life, she raises her daughter in the countryside, making her living as a debt collector. One day, her daughter, who dreams of living an ordinary life, is kidnapped by traffickers and Hai Phuong embarks on a rescue mission that will be the challenge of a lifetime.



Dir. 르 반 키엣  
Le Van Kiet

르 반 키엣은 1978년 출생으로 UCLA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그는 <하우스 인 디 앨리>, <하이스쿨 트랩>, <온순한 여인>, <더스트 오브 라이프>와 같은 작품들의 감독으로 잘 알려져있다.

Born in 1978, Le Van Kiet majored in Film and Television Technology at UCLA. He is best known for directing *House in the Alley*, *High School Trap*, *Gentle*, and *Dust of Life*.

## 작품색인

- 20 긴 산책  
14 리나 2  
24 신비한 여인, 미  
22 우핀 & 이핀의 모험  
28 좀비 워  
18 찌마라 가족 이야기  
16 찜빠 밋탐방: 영혼의 노래  
32 퓨리  
30 프렌드 존  
26 홀로/함께

## 감독색인

- 25 나 지  
21 매티 도  
23 사예드 누르파이즈 칼리드 빈  
사예드 이브라힘  
17 쏭 위살  
23 아담 빈 아미루딘  
23 아흐마드 라즈리 빈 로셀리  
27 앙트와넛 자다운  
19 안디 로렌스  
29 제이슨 탄  
31 차야눔 분프라쿰  
17 케일리 쏘  
33 르 반 키엣  
15 할리프 모하마드

## Index of Films

- 14 Ada Apa Dengan Rina 2  
26 Alone/Together  
30 Friend Zone  
32 Furie  
16 In the Life of Music  
18 Keluarga Cemara  
20 The Long Walk  
24 Mi  
22 Upin & Ipin: Keris Siamang Tunggal  
28 Zombiepura

## Index of Directors

- 23 Adam Bin Amiruddin  
23 Ahmad Razuri Bin Roseli  
27 Antoinette Jadaone  
17 Caylee So  
31 Chayanop Boonprakob  
15 Harlif Mohamad  
29 Jacen Tan  
33 Le Van Kiet  
21 Mattie Do  
25 Na Gyi  
17 Sok Visal  
23 Syed Nurfaiz Khalid Bin Syed  
Ibrahim  
19 Yandy Laurens

## 주최/주관 Host

한국국제교류재단	The Korea Foundation
아세안문화원	ASEAN Culture House

## 협력/후원 Support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부산시	Busan Metropolitan City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부산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CGV 명동역	CGV Myeongdong Station Cine Library
씨네라이브러리	
메가박스 제주	Megabox Jeju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이근	President / Lee Guen
교류협력이사 / 김성인	Executive Vice President / Kim Seongin
아세안문화원장 / 함승훈	Director-General of ACH / Ham Seunghoon
문화사업부장 / 이방복	Director of ACH Exhibition Program / Lee Bangbok
문화사업부 / 최다혜	Senior Program Officer / Choi Dahye

## 행사진행 Festival Agency

객원 프로그래머 / 김영우	Guest Programmer / Kim Youngwoo
우주플레이	WOOZOOPLAY
대표 / 채영아	Director / Chae Youngah
프로그래밍장 / 김다혜	Program Manager / Mia Dahye Kim
기획홍보팀장 / 신은경	Planning & Publicity Manager / Clara Eungyeong Shin
기획홍보팀 코디네이터 / 김은정	Planning & Publicity Coordinator / Kim Eunjung

## 초청진행 Invitation Agency

현대경제연구원	Hyundai Learning Center
인재개발원	
연구위원 / 유병선	Research Fellow / Byungsun Leo Ryoo
연구원 / 조민형	Researcher / Cho Minhyung

## 기술팀 Technical Dept

진미디어	Jin Media
박찬진	Park Chanjin
김일지	Kim Iiji
남한별	Nam Hanbyeol

## 자막팀 Subtitle Dept

21세기 자막단	21st Century Productions
----------	--------------------------

##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김영우	Kim Yooengwoo
부경환	Boo Kyunghwan
이지은	Lee Jieun

이 영화제는 아세안 10개국의 대사관 및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완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This film festival was made possible by the generous support and contributions from the embassies and relevant institutions of the 10 ASEAN Member States.

Brunei Darussalam, The Kingdom of Cambo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번역 Translation

윤혜진	Yun Hyejin
조용경	Helen Cho

## 감수 Proofreading

제이미 라이프카	Jamie Lypka
----------	-------------

## 현장 지원 Field Support

강예림	Gang Yerim
김보현	Kim Bohyeon
김은진	Kim Eunjin
남연주	Nam Yeonju
남지수	Nam Jisu
다오 티 탄투이	Dao Thi Thanh Thuy
문지영	Mun Jiyeong
박민수	Park Minsu
박소희	Park Sohee
신채영	Sin Chaeyoung
송수연	Song Suyeon
오수빈	Oh Subin
유나영	Yoo Nayoung
이석준	Lee Seokjun
이소원	Lee Sowon
이현경	Lee Hyeongyeong
최효정	Choi Hyojeong

## 디자인 Design

위현지	Wi hyeonji
-----	------------

## 인쇄 Print

스페이스폼	Spaceform
-------	-----------

## 행사기록 Festival Sketch

공식 사진팀 Photography	
포스	PHOS
최우창	Choi Woochang

## 공식 영상팀 Video

필름무다	FILMUDA
------	---------

## 개막식 연출 Opening Ceremony Direction

개막식 연출 (서울) / 박상영	Opening Ceremony Director (Seoul) / Park Sangyoung
기념식 연출 (부산) / 이은경	Special Ceremony Director (Busan) / Lee Eunk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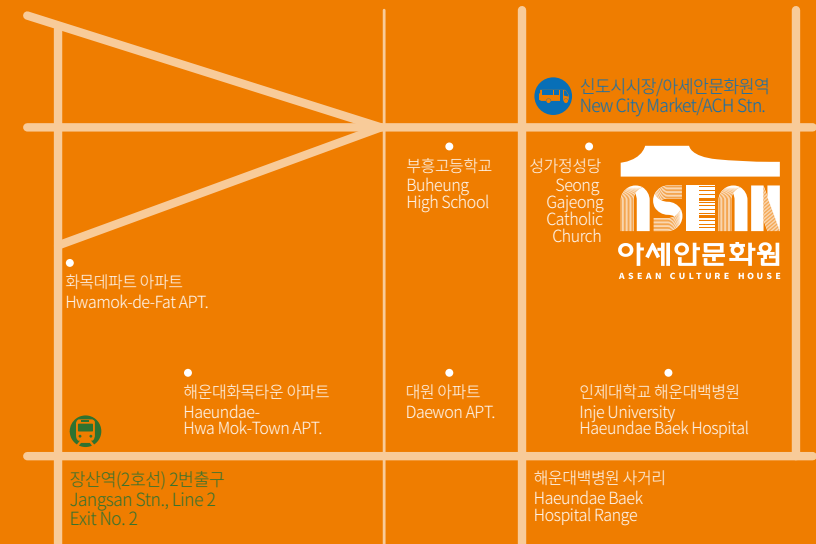
김무연 (콘텐츠 판다)  
 김지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희선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박다명 (루믹스미디어)  
 박민영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박상수 (영화의전당)  
 방기훈 (PF컴퍼니)  
 안해정 (아카펠라 엔터테인먼트)  
 이상웅 (퍼펙트렌탈)  
 이석호 (메가박스 제주)  
 이영섭 (스페이스 품)  
 이은애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이정화 (콘텐츠 판다)  
 이진성 (롯데컬처웍스)  
 정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정진호 (영화의전당)  
 채영웅 (PF컴퍼니)  
 허영환 (영화의전당)  
 Annick Mahnert (Screen Division)  
 Chris Larsen  
 Nailen Kristinne R. Garalde  
 Prima Taufik (Visinema Pictures)  
 Quynh Dang Nhu Le (Norwester)  
 Shazlin Kamaruddin (Les' Copaque Production Sdn. Bhd.)



## 운영시간 OPENING HOURS

화요일-금요일 Tuesday – Friday	토요일 & 일요일 Saturday and Sunday	월요일 및 공휴일 Monday and Public Holidays
10:00-18:00	10:00-19:00	이용불가 Unavailable

## 오시는길 DIRECTIONS



○ 주소: 481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62

Address: 162, Jwadong-ro, Haeundae-gu, Busan 48108, Republic of Korea

# 2019 아세안영화주간

## ASEAN CINEMA WEEK 2019



[www.ach.or.kr](http://www.ach.or.kr)



[@asean\\_cw](https://www.instagram.com/asean_cw)



[ASEANCultureHouse](https://www.facebook.com/ASEANCultureHouse)